

보도일시 (인터넷) 2024. 6. 26.(수) 11:00, (지면) 2024. 6. 27.(목) 조간
배포 2024. 6. 26.(수) 06:00

GPS 위치오차를 5cm로 대폭 줄인 고정밀 위치서비스, 시연행사 개최

- 6월 27일, 울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에서 고정밀 위치서비스 시연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27일(목) 울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에서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를 실제 선박에 적용한 성과를 검증하는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선박 자율화·무인화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 모빌리티*의 안정적인 항법을 지원하고자 GPS 위치오차를 10m에서 5cm까지 대폭 줄인 고정밀 해양 위치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자율운항선박, △선박 자동접안, △스마트항만 운영, △도선지원, △해양드론 등

해양에서 고정밀 위치정확도 확보 기술은 다양한 해양 모빌리티와 수로 측량 및 항만·플랜트 건설 등 공공안전 분야에 핵심이 되는 기술로 평가받으며, 미국·유럽연합(EU)·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선점하는데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하여 건조한 ‘해양누리호’(자율운항시험선)를 통해 전 과정을 시연할 계획이며, 고정밀 위치정보를 적용한 선박과 드론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수평 위치오차 5cm급의 성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에서 위치정확도 5cm급 확보는 우리나라의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매우 뜻깊은 혁신적 성과이다”라며 “앞으로 고정밀 해양위치 기술을 활용한 응용 분야를 확산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강대웅 (044-200-5880)

참고1

고정밀 해양 PNT 서비스 기술개발 성과 시연행사 개요

□ 추진 배경

- 연구개발한 고정밀 해양 PNT 서비스*를 무인이동체(자율운항선박·드론)에 적용한 성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의 우수성 홍보에 활용
- * (PPP-RTK 기술 적용) GPS의 주요 측위오차를 성분별로 제공하여 처리하는 방식, 넓은 커버리지와 단방향 통신으로 해양 고정밀 항법에 장점

□ 시연회 계획

- (일시/장소) '24.6.27.(목) 14:00~15:30/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울산)
- (참석자) 해사안전국장, 항로표지과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통합 PNT 연구단 단장, 울산MBC(기자) 등 총 20명
- (주요내용) 그간 연구성과 발표, 고정밀 해양 PNT 정보를 수신한 자율운항선박의 실시간 경로의 정확도를 일반 GPS와 비교하여 시연

- 실증대상: 자율운항선박(69톤, 해양누리호) 드론
- 실증구간: 실증센터 앞 해역 600m 구간
- 활용정보: 고정밀 해양 PNT 정보를 울산MBC의 UHD에 포함하여 송출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14:00~14:05	일정 및 참석자 소개	담당
14:05~14:15	인사 말씀	해사안전국장
14:15~14:30	연구개발 경과 및 성과보고	해양PNT 통합연구단
14:30~15:00	성능실증 시연	
15:00~15:20	질의 응답	
15:20~15:30	기념촬영	해사안전국장

□ 향후계획

- 고정밀 PNT 서비스 선포식 및 시범운영: '24.12~

